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앞으로의 저희 주거지 겸 은퇴 보금자리를 영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선교사 한 가정과 이미 은퇴하신 목사 두 가정, 교수 한 가정, 일반 성도 세 가정을 포함해서 총 여덟 가정이 이미 정착했거나 곧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 안에 마을회관 겸 교회가 있어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멀어 불편한 점도 많지만 네팔의 세르파 마을을 연상케 하는 높은 산으로 둘러 쌓인 이곳에서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3년 뒤 (주민등록 나이로) 70세가 되는 저는 2024년 행정적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세르파 구역번역이나 그 외의 번역 자문위원(컨설턴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어 은퇴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네팔을 방문하는 일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은 2023년 말 네팔 집을 정리하고 거주지를 한국으로 옮긴 후 2024년에는 국내 정착준비 겸 마지막 안식년을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 작년 6월 국내로 들어와 지금까지 비거주사역을 하게 되면서 원래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일단 다음달인 10월 27일 네팔로 귀임할 예정입니다. 네팔 집정리는 내년 중반 정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국에 온 이후 저는 지비티 선교 본부가 맡긴 새로운 학술법인체 설립하는 일을 맡아 분주했었는데 지난 9월 26일 지비티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인체를 정부에 등록하고 향후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법인체, 그리고 언어학적 사역을 돕기 위한 펀드 개발을 위한 법인체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저의 사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나 한국과 미국 방문 중에서도 번역 점검하는 자문위원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티벳의 한 부족어로 창세기를 점검했고, 한국에 돌아와 네팔의 한 부족어로 로마서 일부를 점검했습니다. 영월의 깊은 산 속에서도 네팔에 사는 현지인들과의 번역점검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늘한 산공기가 느껴지고 주위의 나무들도 조금씩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가을은 더 성큼 다가오겠죠.

서서히 깊어가는 이 가을에 세르파 부족의 복음화를 위해 늘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2021년 9월 29일

이상룡, 이해련 드림